

# 대구의 문화생태환경 복원과 활용

전 영 권\*

## The Restoration and Application of Cultural and Ecological Environments of Daegu City

Young-Gweon Jeon\*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대구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대구의 문화생태환경 복원과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잘못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자연경관은 신천과 입암으로 이에 대한 수정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 외에도 지명의 오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문헌에 전해지는 대구의 두 바위 중 하나인 입암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지만, 화암은 최근에 그것의 실체가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보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요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해 이들을 대구 문화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형경관 중에서도 문화 또는 역사와 관련된 지형경관을 특별히 '문화지형(Cultural landform)'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대구시, 문화생태환경, 자연경관, 문화생태관광자원, 문화지형.

**Abstract** : This research is undertaken as a preliminary study for cultural and ecological environments of Daegu city which is required to improve urban image as the host city of 2011 World Championship in Athletics.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correct some errors in the natural scenery, such as Shincheon and Ibam which are known as important natural scenery of Daegu city. and also necessary to correct some errors in the name of places. Secondly, according to the old literature, it is known that there are two famous rocks in Daegu. Ibam, one of the two, is known as already disappeared. However, Hwaam, the other one, has been recently revealed as substantial. Therefore, the city needs to preserve the natural inheritance. In this sense, the city needs to consider to utilize natural scenery as cultural eco-tourism resources. Lastly, some part of landforms are related to culture and history. Thus, I proposes to name them as 'cultural landforms'.

**Key Words** : Daegu city, cultural and ecological environments, natural scenery, cultural eco-tourism resources, cultural landform.

### 1. 연구목적

2006년 아프리카 케냐의 몸바사에서 열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에서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대구시는 향후 이런 저런 일로 대구를 찾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대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셈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대구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하고도 많은 양의 자료 분석에 근거한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대구시나 경상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구·경북의 경제 활성화와 문화 및 삶

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그것은 일명 'G 프로젝트'<sup>1)</sup>로 금호강 유역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개발하려는 계획이다. 즉 'G 프로젝트'는 금호강 유역권에 속하는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개발계획이다. 이 계획이 보다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G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구의 도시 이미지 가치를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대구의 정체성과 대구의 본 모습을 찾아내는 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구

\*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jeonyg@c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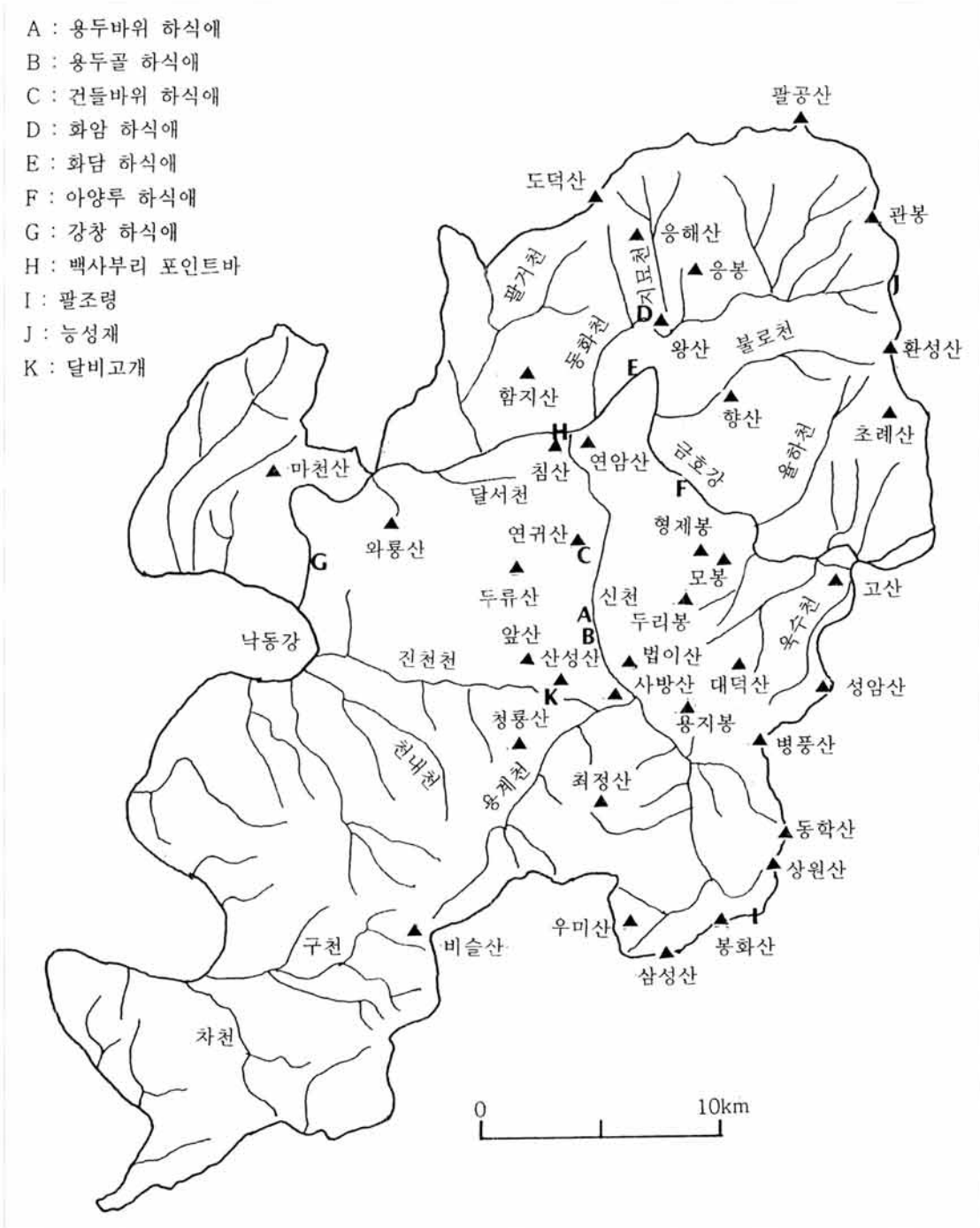


그림 1. 대구의 주요 지형

의 대표적 자연경관을 선정하였다. 자연경관 연구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구의 대표적 인 자연경관 중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을

수정함으로써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또한 근대화 이전 대구의 대표적 자연경관을 발굴 하여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대구의 문화생태 환

경을 조성하며 나아가서는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산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대구와 관련된 고문헌과 고지도 분석은 물론, 해당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구의 참 모습과 실체를 규명하여 대구 도시 이미지 구성과 대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 2. 잘못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자연경관

세계적으로 봐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 가운데 대구처럼 산과 강이 지척에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250여 만 명에 이르는 많은 인구를 지탱해주는 대구의 원동력이 산과 강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대구분지는 북쪽에 팔공산지, 남쪽에 비슬산지가 위치하며, 분지를 동에서 서로 흐르는 금호강은 동화천과 신천에 의해 북쪽의 팔공산지와 남쪽의 비슬산지에 연결된다(그림 1). 결국 대구를 구성하는 중심 생태축은 팔공산지-동화천-금호강-신천-비슬산지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구 주요 생태축의 한 구성요소인 신천과 신천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입암(笠巖, 삿갓바위)은 현재 대구시민들에게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대표적 자연경관이다.

신천이라는 지명의 어원은 1778(정조 2년)년 대구 판관으로 부임해온 이서(李澈)가 대구 중심을 흐르던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재를 들여 현재의 물길로 돌린 이후 생겨난 새로운 물줄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신천(新川)이라는 용어를 한자의 의미에서 생각해본다면 일견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첫째, 이서가 신천의 물줄기를 돌렸다는 1778년 이전에 제작된 팔도여지도(16세기 후기), 광여도(1698년~1703년), 해동지도(18세기 중엽), 좌해분도(18세기 중기), 동국지도(18세기 중기) 등에 표현된 신천의 위치는 신천의 현재 위치와 동일하다(그림 2, 그림 3).

둘째, 1778년 이전에 발간된 경상도지리지(1425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그림 2. 여지도 (경상도: 18세기 중엽)

년)의 대구편에 신천이라는 지명이 이미 나타난다.

셋째, 신천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이다. 관련 고문헌을 두루 살펴봐도 대구 신천의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신천이라는 용어가 대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경기도 양주시의 신천(新川)이나 서울 강동구 잠실역 일대의 신천(新川)은 샛강의 의미를 가진다. 이 밖에 청천강 유역과 충청도의 금산에서도 신천(新川)이라는 지명이 존재하였으나 물줄기를 변경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유추해 본다면 대구의 신천 역시 대구 판관 이서가 제방을 쌓아 물길을 돌린 이후 새로 생겨난 하천이라는 의미에서의 신천이 아니라, 대구와 수성현 사이를 흐르는 하천이라는 뜻에서 '사이천', 또는 '새천(샛강)'이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신천(新川)'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2)</sup>

신천과 관련하여 대구시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또 다른 자연경관은 신천에 존재했었다고 기록으로 전해지는 입암이다. 입암은 조선 초 대유학자인 서거정 선생이 대구의 아름다운 풍광을 칠언 절구 한시 10수로 지어낸 '대구 십경'<sup>3)</sup> 중 '입암조어(笠巖釣魚, 삿갓바위에서 낚시하는 풍경)'에 등장하는 자연경관으로 현재 중구 봉산동에 위치하는 건물바위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도 대구에서 발행되는 각종 문헌에는 건물바위를 삿갓바위로 잘못 소개하고 있다. 건물바위는 삿갓바위의 뜻을 가지는 입암(笠巖)이 아니라 '서 있는 바위'라는 의미의 입암(立巖)이다. 즉 '선돌'이라

대구의 문화생태환경 복원과 활용

는 의미다. 선돌이라는 지형명은 우리나라 곳곳에 나타나는 지형명으로 꽤 흔하다. 지금의 건물바위가 있는 곳의 마을 이름 역시 조선시대에는 건물바위의 서 있는 모습을 따 입암리<sup>4)</sup>로 불렸다. 즉,

행정지명이 대구부(大丘府) 하수서면(下守西面) 입암리(立巖里)였던 것이다. 17세기 중엽에 제작된 해동지도에서도 삿갓바위는 경상감영이 있었던 현재의 경상감영공원의 북동쪽에 표시되어 있어 남



그림 3. 해동지도(대구부: 18세기 중엽, □안이 입암)

쪽에 위치하는 건물바위와는 위치에서도 전혀 다르다(그림 3).

또한 대구와 관련된 각종 고문헌에도 입암의 위치는 경상감영(현재 대구시 중구 대안동에 위치한 경상감영공원 자리)의 동편 5리쯤에 위치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경상감영의 남쪽에 위치하는 건물바위와는 위치가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고문헌 기록에도 입암의 암석 특성은 유성이 떨어져 형성된 운석이라고 한 반면, 건물바위를 구성하는 암석은 대구분지를 구성하는 암석과 동일한 퇴적암이어서 구성암석의 성분에 있어서도 상이하다.

이 밖에 잘못 전해지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비슬산의 경우 삼국유사와 경상도지리지에서는 비슬산(毗瑟山)으로 표기되던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부터 비슬산(毘瑟山)으로 표시되어 왔으며, 앞산의 경우도 언제부터 앞산으로 불렸는지 알 길이 없으나(일제 강점기 때 제작된 지도에는 앞산을 한자식 표현인 前山으로 표현하고 있음), 고문헌에는 성불산(成佛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법이산(法伊山)이 법니산(法泥山) 또는 법이산(法耳山)으로, 장현(牆峴)이 담티고개 등으로 불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대구(大邱) 지명도 원래 한자 표기인 대구(大丘)와는 다르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1750년(영조 20년) 대구의 유생인 이양채(李亮采)가 대구의 '구(丘)'는 공자의 휘(諱)자이므로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후<sup>5)</sup>, 1780년대부터 점차 대구(大丘)에서 대구(大邱)로 변경되어 쓰이게 되었다. 따라서 대구(大邱)도 대구(大丘)로 바로 잡는 것이 대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 3. 대구를 대표하는 자연경관

대구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대구의 중심 생태축을 구성하는 팔공산, 동화천, 금호강, 신천, 비슬산 외에도 많은 자연경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할 주요 자연경관은 옛 모습으로의 자연경관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해 볼 때, 예로부터 선조들이 중시해온 경관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대표적 자연경관의 평가기준으로는 고문헌과 고지도를 통해서 추출하였다. 즉 고문헌의 산천편이나 고지도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자연경관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경관의 수려함을 언급한 경우는 규모와 관계없이 대구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대표적 자연경관은 <표 1>과 같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듯이 일부 지형 명칭의 경우 지금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거나, 명칭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의 문화생태환경 복원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서거정의 '대구십경'과 현재 대구의 대표적 자연경관을 고려해 볼 때, 주요 자연경관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는 팔공산, 비슬산, 앞산, 법이산, 와룡산, 침산, 연귀산, 향산, 왕산, 금호강, 신천, 동화천, 성당못, 건물바위, 용두바위, 금호강의 하중도, 화암, 화담, 팔현습지, 안심습지, 달성습지 등이며, 이들은 향후 대구시의 각종 계획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 고문헌과 고지도에 나타나는 대구의 주요 자연경관

구 분	지형 명칭
산과 관련된 자연경관	고산, 광명산, 나가산(향산), 남산, 대덕산, 도덕산, 독모산, 동학산, 마천산, 법이산, 별방산, 북산, 비슬산, 사방산, 성도봉, 성불산(앞산), 성산, 수왕산, 연귀산, 와룡산, 왕산, 조아산, 조족산, 초례산, 최정산, 침산, 파산, 공산(팔공산), 평산, 형제봉
고개와 관련된 자연경관	고노치, 능성현(능성재), 성현, 여울현, 원현, 장현(담티고개),정현(숫재), 파군치(파군재), 향립치,
하천과 관련된 자연경관	입암, 화암(화암담), 금호(금호강), 금호진, 낙동강, 달천, 동안진, 사문진, 사수, 신천, 저탄, 전탄(동화천), 팔거천, 해안천, 행탄, 화담,

주: 굵은 글씨체 지명은 과거 지명이 현재와 같은 경우이며, ( ) 안의 지명은 현재의 지명을 나타내고, 밑줄 친 지명은 지금의 명칭을 알 수 없거나 현재 같은 지명이 존재하지만 동일 지명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 4.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연경관

대구가 정체성을 가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연경관들을 발굴하여 제대로 된 복원 및 보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자연경관 중 특히 지형경관은 동·식물과는 달리 일단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보존을 위한 사전 대책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구를 대표하는 지형경관들로는 앞산의 용두산과 용두바위, 입암(笠巖), 연경동의 화암(畫巖), 봉산동의 건들바위, 동변동 화담(花潭)의 하석애(하천가의 절벽바위), 신천변과 금호강변의 하석애 등이 있다. 상기의 경관들 중 입암, 하천변을 아름답게 장식했던 이름 모를 하석애, 신천대로변에 위치했던 용두바위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지난 시절 난개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어 다행이다. 다만 고문헌에서 매우 비중 있게 언급되었던 입암이 지금은 사라져 버려 그 흔적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안타깝다. 더구나 봉산동에 위치하는 건들바위를 입암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일은 사라져 버린 입암 이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지형경관들은 훼손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적인 보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상동교와 두산로 간 고가도로 건설 중 신천 좌안의 경우, 용두산 일부는 이미 파괴된 상태이다(그림 4). 용두바위 역시 고가도로 완공 이후에는 수려한 경관이 많이 훼손될 처지에 있다.



그림 4. 상동교-두산로 간 고가도로 공사로 훼손된 용두바위

최근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전국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방침으로 인해 금호강 건너편의 북구 연경동 일대가 대규모 택지 개발지로 확정된 상태라 향후 연경동 일대에서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경서원 근처에 있다고 고문헌에 전해지는 화암(畫巖)<sup>6)</sup>의 경우 그것의 실체에 대해 명확한 고증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 필자는 화암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있던 터라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고문헌을 토대로 수차례의 현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마침내 화암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화암은 동화천 공격사면부에 위치하고 있는 일종의 하석애다(그림 5). 기반지질은 하층부의 경우 약간 붉은 빛을 띠는 사암 또는 세일층으로, 상부는 역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1억여년 전 호수에서 형성된 퇴적암이다. 본 암석은 현재 대구분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과 같은 암질이다. 본 경관은 팔공산 또는 비슬산의 기반 암석이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수려한 외양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약간 어두운 색상을 띠는 퇴적암의 지형경관이지만 암석의 구조적 특성과 기묘한 외양으로 인하여 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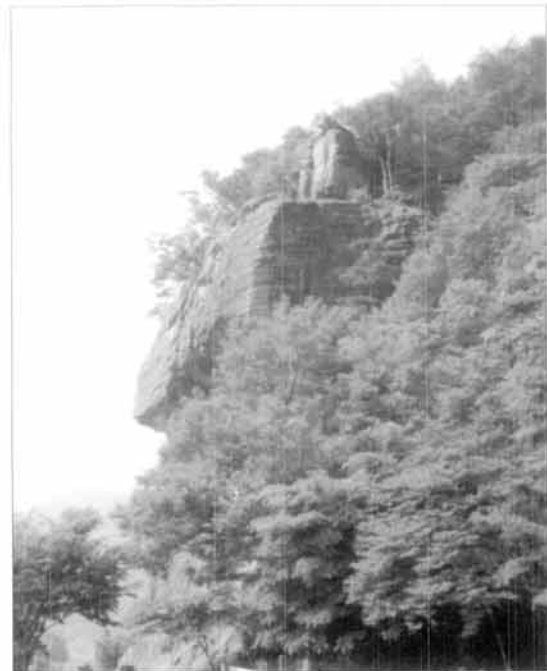


그림 5. 금호강의 지류, 동화천 변에 발달한 하석애인 화암의 전경

롭다. 화암은 벌집 모양의 풍화현인 타포니(tafoni, 벌집바위)와 상층부의 돌출 부위(일부는 동화천변도로 공사 시 발파 작업으로 인해 훼손됨)로 인한 기묘한 형상이 화암을 예로부터 중요한 지형경관으로 인식케 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화암은 그 앞을 흐르는 동화천과 더불어 수려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하다. 그러나 현재 화암은 산악인들의 암벽 등반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많이 변색되었다. 또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암 곳곳에는 사람의 이름이 페인트나 조각기구에 의해 새겨져 있거나, 본 바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찰에서 바위 벽면에 암굴을 조성 중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그림 6). 특히 화암 옆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연경서원은 대구지역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서원으로 의미가 크다. 차제에 연경서원 터에 대한 고증과 발굴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림 6. 관리소홀로 훼손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화암

### 5. 문화생태관광자원으로 복원되거나 활용되어야 할 자연경관

대구에는 국내 어느 지역 못지않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환경이 녹아있는 곳이므로 문화생태관광자원 발굴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개발계획을 조화롭게 수립한다면 훌륭한 문화생태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다. 즉, 대구가 제대로 된 문화생태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면 대구의 전통산업으로 자리매김해온 섬유산업과 더불어 문화

생태관광산업은 미래 대구의 신성장 산업의 동력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선진사회에서 이미 미래 주요 산업의 한 축으로 각광받는 문화산업을 대구시 산업구조에 자연스럽게 편제시킴은 물론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개발이 가능한 대표적인 문화생태관광자원으로는 첫째, 왕건 관련 유적지로서 대왕동, 무태, 연경동, 지묘동, 나팔고개, 파군재, 왕산, 독좌암, 일인석, 살내, 불로동, 시랑이, 안심, 반야월, 은적굴, 왕정, 안일암, 왕굴, 임휴사 등이 있다. 둘째, 고문헌을 통해 본 금호강의 경관으로 하식애, 누대정사, 화담, 백사부리, 하중도, 밤숲, 팔달진의 나루터와 줄지어 늘어 선 주막과 버드나무 풍광, 검단 나루터, 사문진 나루터, 연경동 동화천변의 화암 등이다. 셋째, 서거정이 '대구십경'에서 제시한 수려한 풍광 등이다. 이 밖에도 앞산 고산골 입구 신천변의 용두바위, 대구읍성, 대구천의 건들바위, 아미산의 향교와 관덕정, 달성공원, 서문시장, 봉산동 문화거리, 골목명소 등은 대구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대구 문화산업 발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연구자는 대구의 대표적 자연경관인 신천과 금호강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보존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구읍성 복원을 포함하여 대구에 녹아 있는 다양한 '골목 문화'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신천과 하나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탐방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sup>7)</sup> 이것은 대구의 문화와 자연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대구의 문화정체성을 확립시킴은 물론 대구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때 마침 대구의 문화예술시민단체인 '대구거리문화시민연대'가 발간한 『대구 신 택리지(大邱 新擇里志)』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본 책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닌 단순히 문화시민단체 수준에서 조사가 진행된 관계로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도 요구된다.

둘째, 조선 초기 대유학자 서거정 선생의 '대구십경'과 고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 대구의 다양한 풍광 등을 금호강의 문화생태적 복원과 활용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 즉 금호강의 뱃놀이 모습, 검단

의 청암, 동변동 화담의 진달래, 동촌의 아양루, 강창의 하석애, 화원의 상화대·사문진나루터·백사장, 노원의 나루터·백사장, 강정 나루터, 검단 나루터, 팔달교 일대의 밤숲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현재의 금호강 생태복원에 활용한다면 외국 어느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 보다 생태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셋째, 팔공산과 앞산에는 왕건과 견훤 간에 벌어진 공산전투와 관련한 지명과 유적이 전해져 오고 있어 이를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와 연계시킨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을 창출할 수 있어 대구의 생태환경과 문화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대구에서 열리는 만큼, 팔공산 일대를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의 마라톤 코스<sup>3)</sup>로 개발하게 되면 마라톤의 유래와 비슷한 역사성을 가지므로 대구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환경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6. 결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으로 향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구를 찾게 될 것이다. 대구시는 이들에게 대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문화생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구·경북의 경제 활성화와 문화 및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G 프로젝트'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G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상기의 두 가지를 연계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대구의 정체성과 대구의 본 모습을 찾아내는 데 주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구의 대표적 자연경관을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대구의 대표적 자연경관 중 지금까지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정을 통하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근대화 이전 대구의 대표적 자연경관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대구의 문화생태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서는 이를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산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잘못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자연경관으로

는 신천과 입암으로 이에 대한 수정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 외에도 지명의 오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문헌에 전해지는 대구의 두 바위 중 하나인 입암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지만, 화암은 최근에 그것의 실체가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보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연경관에 대한 보존을 위해 이들을 대구 문화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형경관 중에서도 문화 또는 역사와 관련된 지형경관을 특별히 '문화지형(Cultural landform)<sup>4)</sup>'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 주

- 1) 금호강의 영문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일명 'G프로젝트'로 불리는 금호강 유역 개발계획은 총 15조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금호강 유역을 지역구로 하는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6명이 발의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식경제 자유도시' 건설로 금호강 유역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식벨리로 육성하려는 계획이다. 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팔공산 명상웰빙타운 조성, 수성구 에듀파크 조성 및 건강사업 시범선도사업, 경산의 세계대학도시 연맹 결성 및 국제모험스포츠타운 유치, 영천 군수산업 클러스터 및 세계 한약엑스포 유치, 청도 전원주택단지과 시니어컴플렉스 조성 사업 등이다.
- 2) 전영권(2004, 694) 인용.
- 3) 조선 초 대유학자인 서거정 선생이 대구의 아름다운 풍광을 칠언절구 십수로 표현한 '대구십경(大邱十景)'은 원래 십영(十詠)인 것이 대구십영(大丘十詠), 대구십경(大丘十景), 달성십영(達城十詠), 달성십경(達城十景)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제1경<금호범주 : 琴湖泛舟, 금호강의 뱃놀이>, 제2경<입암조어 : 笠巖釣魚, 입암에서의 낚시>, 제3경<귀수춘운 : 龜岵春雲, 거북산의 봄구름>, 제4경<학루명월 : 鶴樓明月, 금학루의 밝은 달>, 제5경<남소하화 : 南沼荷花, 남소의 연꽃>, 제6경<북벽향림 : 北壁香林, 북벽의 향림>, 제7경<동화심승 : 桐寺尋僧, 동화사의 중을 찾음>, 제8경<노원송객 : 櫓院送客, 노원에서의 송별>, 제9경<공령적설 : 公嶺積雪, 팔공산에 쌓인 눈>, 제10경<침산낙조 : 碯山落照, 침산의 저녁노을>.
- 4) 「대구읍지」방리편의 기록에 의하면, 건물바위 앞을 흐르는 개울(대구천)을 중심으로 오른쪽 마을을 '동변입암리', 왼쪽 마을을 '서변입암리'로 명명하고 있다.
- 5) 조선왕조실록(영조26/12/02 : 신미) 기록에 의하면 대



구의 지명에 대한 이양채의 상소문과 영조의 지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조는 이양채의 상소문을 무시하고 대구(大丘)의 원래 한자를 사용토록 지시하고 있다. CD-ROM 국역조선왕조실록(조선왕조실록CD-ROM간행위원회, 1995)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구(大丘)의 유학(幼學) 이양채(李亮采)가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들이 사는 고을은 바로 영남의 대구부(大丘府)입니다. 부의 향교(鄕校)에서 선성(先聖)에게 제사를 지내 온 것은 국초부터였는데, 춘추의 석채(釋菜)에는 지방관이 으레 초헌(初獻)을 하기 때문에 축문식(祝文式)에 대수롭지 않게 ‘대구 판관(大丘判官)’이라고 써넣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구(大丘)’의 ‘구(丘)’ 자는 바로 공부자(孔夫子)의 이름자인데, 신전(神前)에서 축(祝)을 읽으면서 곧바로 이름을 범해 인심이 불안하게 여깁니다. 삼가 바라건대, 편리함을 따라 변통하여 막중한 사전(祀典)이 미안하고 공경이 부족한 탄식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승지 황경원(黃景源)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예(禮)에 ‘모든 제사에는 휘(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예로부터 고을 이름에 공자의 이름자가 많이 있습니다. 개봉부(開封府)에는 봉구현(封丘縣)이 있고, 진주부(陳州府)에는 침구현(沈丘縣)이 있으며, 귀덕부(歸德府)에는 상구현(商丘縣)이 있고, 하간부(河間府)에는 임구현(任丘縣)이 있으며, 순천부(順天府)에는 내구현(內丘縣)이 있고, 제남부(濟南府)에는 장구현(章丘縣)이 있으며, 청주부(靑州府)에는 안구현(安丘縣)이 있는데, 현의 향교에서 석전(釋奠)할 때 일찍이 휘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지금 원량(元良)이 아뢴 바를 듣건대 대구의 유생들이 고을 이름의 일을 상소로 진달했다고 한다. 아! 근래에 유생(儒生)들이 신기한 것을 일삼음이 한결같이 어찌 이와 같은가? 3백여 년 동안 본부의 많은 선비들이 하나의 이양채 등만 못해서 말없이 지내왔는가? 한낱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상구(商丘)와 용구(丘)란 이름이 아직도 있는데, 옛날 선현(先賢)들이 어찌 이를 깨닫지 못했겠는가?” 하고, 그 상소를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 6) 「대구읍지」 산천편에 ‘화암은 부(府)에서 북쪽으로 15리쯤에 있으며, 붉고 푸른 암벽 단애가 높이 솟아 있는데, 그 외양이 기이하여 마치 그림을 그려 놓은 듯하여 사람들이 화암이라 부른다’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대구읍지」 학교편 연경서원(研經書院)에 보면 ‘연경서원은 부에서 북쪽으로 20리 정도 떨어진 화암 아래에 있다’로 되어 있으며, 기(記)에 보면, ‘연경서원 뒷마을은 지묘동, 아랫마을은 무태(서변동)인데, 연경서원이 그 사이에 위치하니 본 마을 이름은 연경동이다. 이곳은 처음에는 풀로 뒤덮인 들판이었고, 맑은 물줄기(동화천) 하나가 그것의 남쪽으로 흐르며, 산을 따라 서쪽으로 10리를 채 못 가 금호강에 합류한다. 연경서원 상류 2리쯤에는 왕산이 있고, 남쪽에는 층층의 산줄기와 봉우리들이 마치 용과 봉황이 나는 듯 춤을 추는 듯 하나가 된 산의 모습을 보는데 연경서원의 동남쪽 풍광이다. 연경서원 북쪽은 성도산(成道山)이다. 산봉우리는 낮고 골짜기는

조용하고 순하며, 하얀 돌과 푸른 솔이 숲은 듯 나타나면서 서쪽으로 이어지더니 갑자기 큰 바위가 천 길 높이로 깎아지른 듯 자리하니 이것이 바로 화암이다. 화암은 연경서원의 서쪽을 지켜주며, 붉고 푸른 절벽이 우뚝 솟아 있고 기이한 모습이 마치 그림과 같아 화암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 아래에는 푸른 못이 있는데, 깊고 맑으며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이곳은 연경서원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로 기록되어 있다.

- 7) 탐방코스 : 달성-서문시장-대구읍성길-경상감영공원-금학루-동성로-양봉원골목-약전골목-화교골목-떡전골목-진남문-아미산 관덕정-봉산문화거리-연귀산-향교-건들바위-대백프라자-대봉교-신천.  
 8) 마라톤 코스 : 월드컵경기장 메인스타디움-담티고개-범어네거리-법원-동대구역-동구청-공향교-불로동-과근혜-지묘동의 왕산-연경동 화암-무태-엑스코-신천대로-대구읍성-범어네거리-담티고개-월드컵경기장.  
 9) 본 용어는 인류의 문화, 역사와 관련이 있는 지형에 대해 사용함으로써 해당 지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제 간 연구도 활발하게 되어 관련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서는 문화지형의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이 가능해 문화관광산업 신장과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

- 김성우, 조선시대 대구읍세의 팽창과정, 대구사학, 75, 65-98.  
 대구광역시 중구청, 1998, 경상감영 사백년사, 신흥 인쇄소.  
 이정웅, 1993, 팔공산을 아십니까, 그루.  
 이정웅, 2000, 대구가 자랑스러운 12가지 이야기, 북랜드.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전영권, 2003, 이야기와 함께하는 전영권의 대구지리, 도서출판 신일.  
 전영권, 2004, 대구 신천 유로에 관한 새로운 해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689-697.  
 전영권, 2006, 고문헌의 지명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전통 지형관 -대구지역을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13(4), 9-17.  
 조선사연구회, 2002, 조선시대 대구 사람들의 삶, 계명대학교출판부.  
 조선사연구회, 2002, 조선시대 대구의 모습, 계명대학교출판부.

대구의 문화생태환경 복원과 활용

차성호, 1997, 달구벌 문화 그 원류를 찾아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편 · II, 도서출판 그루.

『경상도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고려사』

『대구읍지』

『대동수경』

『대동지지』

『동사강목』

『삼국사기』

『삼국유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광여도

달성도

동국지도

자해분도

팔도여지도

해동지도

(접수 : 2008. 3. 19, 채택 : 2008. 6. 8)